

“무안여행, 무안스마트
투어 앱으로 즐기세요”
오늘부터 20일간 선물 이벤트

무안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무안스마트투어 앱(APP)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여행트렌드가 개별·가족단위 형태의 관광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춰 ‘무안 스마트투어 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무안군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주요 기능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음성안내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관광정보 제공 ▲스마트투어 ▲테마여행 ▲목적지 길찾기 ▲관광지 주변 음식점안내 서비스 등이 있어 무안여행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안스마트투어를 검색 후 다운로드한 뒤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면 이용할 수 있다. 무안군은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당첨결과는 5월 10일 무안스마트투어 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시가지 집중
호우 예방사업 총력**

영광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영광읍 시가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대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심 저지대가 침수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장기(長期)사업과 단기(短期)사업으로 분류하여 총 9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장기사업에는 ▲홍교 배수로 설치 ▲물무산 주차장 노상 저류지 사업 ▲만남에 광장-감 집상회 우수관로 매설 등을 영광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사업에는 ▲물무산 사방댐 설치 ▲도동우수 저류지 보강 ▲향교 저류지 설치 ▲교촌제 준설 ▲도동 임시 저류지 배수문 설치 등으로 현재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올해 장마철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해 예방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달빛 무화과 쌀빵’
남도장터·기찬들 영암몰 입점**

쌀가루 100% 사용 글루텐프리·식이섬유 풍부...선물·간식·식사대용 추천



영암군이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달빛무화과 쌀빵’이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제과점 2개소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중인 가운데 지난 4월 13일부터 남도 장터와 기찬들 영암몰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입점업체는 브래드캐커 베이커리캐페로 군과 판매 협약체결한 업체이다.

군은 전국 1위 생산량과 맛·당도·

또한, 출시 이후 관내 2개 협약 업체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약 2,500박스가 판매되었으며 한번 맛본 이들의 재구매율이 높고 지인들에게 선물용이나 기념품으로도 인기만점이다.

브래드캐커 베이커리 김삼일 대표는 무화과의 고장 영암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무화과빵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차례 도전하였지만 수분이 많아 쉽지 않았고 달빛 무화과 쌀빵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맛있고 영양만점인 빵을 개발해 남도장터까지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만큼 신선한 재료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빵을 굽겠다고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달빛 무화과 쌀빵의 입점으로 남도장터 등 대형 쇼핑몰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한국섬진흥원 유치 다음 행보는

목포시가 섬과 관련해 한국섬진흥원 유치 이후 다음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섬과 관련한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섬진흥원 유치는 섬에 대한 접근과 시책을 새롭게 디자인해가는 목포시의 중장기적 계획에서 살펴본다면 특별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섬의 현안을 풀어내고 있고, 전략이 적중하면서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는 섬을 목포의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방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과를 거두면서도 관내 섬의 현재와 미래에 소홀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표적 섬 관련 사업인 여촌뉴딜300사업은 관내 모든 유인도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는 목표로 공모에 응모했다. 그 결과 달리도와 외달도가 2019년, 울도가 2020년, 고하도가 2021년 대상지역으로 각각 선정되면서 목표를 이뤘다.

무인도서인 장좌도에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생활용수와 교통 인프라도 획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장좌도, 울도, 달리도 등에 수돗물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유치 명분 마련 포석
여촌뉴딜300사업·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등
섬 여건 향상 집중·2028 섬 엑스포 유치 시도**

본격적인 시동은 지난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였다. 시는 타지역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8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기념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돼 성공적으로 국가행사를 진행했다.

다음 행보는 한국섬진흥원 유치였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된 한국섬진흥원 설립의 독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한 도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점은 경쟁 도시와 비교할 때 변별력으로 작용했고, 행정안전부도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국가행사 개최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섬진흥원 유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기념행사 개최가 섬진흥원 유치의 중요한 교두보로 작용한 셈이다.

시는 기념행사 개최와 섬진흥원 유치 등 국가적·중장기적 차원에서 섬을 공급하기 위해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다.

신안 아해부터 울도, 달리도를 거쳐 해남 화원까지 13.49km구간을 해상교량(1.68km), 해저터널(2.73km), 육상도로 등으로 잇는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섬과 관련한 목포시의 다음 목표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다. 시는 서남해안권 섬벨트를 이루고 있는 완도, 진도, 신안 등과 함께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되면 세계 섬 엑스포를 서남해안 지역이 공동 개최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위상을 확립했다”면서 “이제 시야를 세계로도 향해 목표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대동제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문 열어

자연 속 힐링공간 자랑

비대면 안심 여행지로 손꼽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연결한 대동제 생태공원에 조성된 최신식 캠핑장이 오는 23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3주간 임시 개장에 들어갔다. 자연 속에서 생기를 찾고 활력을 충전해가려는 마음을 담아 ‘별별캠핑장’(bbcamp.kr)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별별캠핑장’은 개별사위시설을 갖춘 최고급 사양의 일반카라반 7대, 스파카라반 3대, 글램핑 5동, 통나무집 2동에서 숙박이 가능하다.

이달 말 일반카라반 5대와 오는 6월 초 동화속 키즈카라반 4대가 추가로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공원 곳곳에는 쉬어가는 정자와



꽃밭,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수변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100여 종에 달하는 계절별 수목을 관찰할 수 있다. 공공이용시설로는 매점과 공공화장실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매월교를 건너면 후토스어린이놀이터, 식물원, 양서파충류관 등 자연생태공원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여행으로 에너지를 충전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전기를 쓰고 있는 내집이라면 “안할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셨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2021년 주택용태양광 3kW**

**정부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어디든지 설치 가능

평생 전기요금 절감

**2020년 정부지원금 350만원
자부담금 150만원
(2021년도 지원금액 4월 공고 예정)**

- 1 지붕에 붙여서 설치하는 지붕형
- 2 옥상 위에 설치하는 슬라브형
- 3 마당 빈공간에 설치하는 마당형
- 4 주차장 옹드로 설치 주차장형
- 5 현관앞 햇빛가림막 비가림막 차양형

태양광3kW 설치후 전기요금절감

전기사용량	전기요금	설치후요금	연간절감액
350 kW	55,080원	→ 1,130원	647,400원
450 kW	88,130원	→ 6,020원	985,320원
500 kW	104,140원	→ 11,320원	1,113,840원
550 kW	120,090원	→ 16,640원	1,241,400원
600 kW	136,040원	→ 31,570원	1,253,640원
650 kW	151,990원	→ 42,250원	1,316,880원
750 kW	183,900원	→ 63,620원	1,443,360원

※ 위 전기요금은 2021년 실제 사용량을 참고한 예시금액

**지붕, 옥상은 물론 마당 등 우리집 어디든
낮시간에 그늘만 안지면, 우리집도 태양광 설치 가능**

Solar Solution SUNTEAM 주식회사 썬팀 SUNTEAM Corp.
상담 | 접수 010-4517-1093

매년 당해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참여기업과 계약하여 진행
전국 | 접수 | 방문 | 상담 | 설치하고 관리해드립니다